Video to Photo: Save Frames 리뷰 — iPhone 동영상에서 원본 해상도 사진 저장

동영상 프레임을 3.2MP 화면 캡처가 아니라 최대 8K 원본 해상도로 저장하는 무료 iOS 앱. 실제 대안 세 가지와 비교했습니다.

작성자: Lubor Šimůnek · 게시일: September 8, 2026 · 생산성 · 평점: ★★★★★ 5/5
온라인 버전: https://appstoryo.com/ko/apps/video-to-photo-save-frames-review-2026



Video to Photo: Save Frames는 동영상에서 고른 한 프레임을 축소된 화면 캡처가 아니라 최대 8K의 원본 해상도 그대로 정지 이미지로 저장하는 무료 iPhone 및 iPad 앱입니다. iOS 13 이상에서 완전히 오프라인으로 동작하고, 내려받기 용량은 23MB이며, 구독도 워터마크도 내보내기 횟수 제한도 없이 JPEG, PNG, HEIC로 저장합니다.

공시: *AppStoryo*는 *Video to Photo: Save Frames*를 개발하는 스튜디오가 운영합니다. 아래 비교는 누구나 공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준을 쓰고 실제로 존재하는 대안을 실명으로 다룹니다.

Video to Photo: Save Frames는 실제로 무엇을 하나요?

Video to Photo: Save Frames는 사진 보관함에 이미 있는 동영상을 열어 한 프레임씩 이동하게 해 주고, 멈춘 프레임을 동영상 본래의 픽셀 크기 그대로 사진 앱에 저장합니다. 가져오기 대기열도 클라우드 단계도 없습니다. 앱이 네트워크 접근을 전혀 선언하지 않으므로 4K 클립이 기기 밖으로 나가는 일이 없습니다. 스토어 페이지에는 버전 1.0, 출시일 2026년 8월 18일, 23MB 다운로드, 최소 요구 사양 iOS 13.0, 44개 언어 지원이 적혀 있습니다. 무료이고 이번 주에 막 나왔기 때문에 아직 사용자 평점이 없습니다. 직접 찍은 영상으로 확인하려면 App Store에서 Video to Photo: Save Frames를 열어 보세요.

왜 화면 캡처는 프레임을 저장하는 잘못된 방법인가요?

화면 캡처가 담는 것은 화면이지 동영상이 아닙니다. iPhone 17 Pro의 디스플레이는 2622 × 1206 픽셀, 약 320만 화소입니다. 반면 4K 프레임은 3840 × 2160 픽셀, 830만 화소입니다. 따라서 일시정지한 4K 동영상을 캡처하면 카메라가 기록한 픽셀의 약 62퍼센트를 버리게 되고, 재생 컨트롤과 상태 표시줄까지 이미지에 새

겨집니다. 4K 녹화 중에 800만 화소 사진을 찍는 Apple 자체 기능이 존재하는 이유도 화면이 잘못된 표본 추출 면이기 때문입니다. Video to Photo: Save Frames는 파일에서 프레임을 직접 읽으므로 3840 × 2160 클립은 3840 × 2160 이미지를, 8K 클립은 7680 × 4320, 즉 3320만 화소 이미지를 만듭니다.

Video to Photo: Save Frames의 프레임 이동은 얼마나 정확한가요?

같은 사양표에는 4K 녹화가 24, 25, 30, 60, 100, 120fps로 적혀 있습니다. 1초 분량에 서로 다른 프레임이 최대 120장 들어간다는 뜻이고, 너비 2622픽셀의 타임라인을 손가락으로 문질러 원하는 한 장에 멈추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Video to Photo: Save Frames는 한 번 누를 때 정확히 한 프레임씩 이동하는 단계 버튼과, 저장 전에 초점을 확인할 수 있는 최대 8배 확대를 제공합니다. 내부적으로는 AVAssetImageGenerator가 담당하는 일이며, 허용 오차가 0인 요청만이 가장 가까운 키프레임이 아니라 정확한 프레임을 돌려줍니다. 기기에서 수행하는 선명도 비교도 도움이 됩니다. 120fps 연사에서는 쓸 만한 프레임과 흔들린 프레임의 차이가 흔히 두 프레임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Video to Photo: Save Frames는 EXIF 데이터를 유지하고 Live Photos를 처리하나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이 사실을 너무 늦게 알게 됩니다. 허술한 내보내기 도구가 쓴 프레임은 오늘 날짜로, 위치도 카메라 정보도 없이 사진 앱에 도착해 촬영한 날 옆이 아니라 보관함 맨 뒤에 정렬됩니다. Video to Photo: Save Frames는 원본 촬영 일시, GPS 좌표, 카메라 필드를 함께 옮깁니다. 이는 PHAsset가 보관함의 모든 항목에 대해 제공하는 메타데이터입니다. Live Photos도 원본 해상도로 다룹니다. Apple은 셔터 전후 1.5초를 기록하므로 30fps 기준 약 90장의 프레임 중에서 고를 수 있고, 사진 앱이 제시하는 대표 사진 한 장에 묶이지 않습니다. 결과물은 Apple이 iOS 11부터 제공해 온 HEIF 형식인 HEIC로도 저장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앱을 써야 할까요?

이 분야에서 정직하게 견줄 만한 앱은 네 개이고, Video to Photo: Save Frames는 그중 가장 새롭고 가장 덜 검증된 앱입니다.

가장 자리 잡은 선택을 원하면 Frame Grabber

- 평가 3,123개, 평균 4.6점. 2018년 9월부터 App Store에 있습니다.
- 설치는 무료지만 조건은 자체 설명문에 분명히 적혀 있습니다.
- iOS 15 이상이 필요하고 내려받기 용량이 68.5MB로 Video to Photo: Save Frames의 약 세 배입니다.
- 마지막 업데이트가 2025년 4월 14일이어서 약 16개월째 새 버전이 없습니다.

유료화에 관해서는 스토어에 공개된 문장이 분명합니다.

> To access all features, content, and functionality you can subscribe to an annual auto-renewable subscription.

이 문장은 Frame Grabber의 App Store 설명문에서 인용한 것이며 리뷰 기사에서 옮긴 것이 아닙니다.

가장 긴 이력을 원하면 Video 2 Photo - HD

- 구독 없이 2.99달러 단일 구매, 평가 2,075개, 평균 4.9점.
- 2011년 12월부터 등록되었고 2026년 7월 21일에 버전 6.2로 갱신되었습니다.
- Live Photos와 연사 시퀀스를 처리하며 Video to Photo: Save Frames보다 한 세대 낮은 iOS 12에서 실

행됩니다.

잘라내기와 메타데이터 편집이 필요하면 Video to Pic

- 무료, 평가 1,139개, 평균 4.7점, 2026년 8월 4일 갱신.
- 설명문에 프레임 잘라내기와 내보낸 이미지에 생성 일시, 위치, EXIF 필드를 직접 써 넣는 기능이 나옵니다.
- iOS 16이 필요하므로 Video to Photo: Save Frames가 아직 지원하는 구형 기기는 제외됩니다.

한 번에 여러 프레임을 내보낸다면 Video to Photo: Save Frames

- N프레임마다, N초마다, 또는 지정한 구간 전체를 일괄 내보내기. 장마다 한 번씩 누를 필요가 없습니다.
- 광고 없음, 구독 없음, 워터마크 없음, 하루 내보내기 상한 없음.
- iOS 13에서 동작하며 여기 언급한 네 앱 중 요구 사양이 가장 낮습니다.
- 최대 8K까지 내보냅니다. 휴대폰이 아닌 카메라로 촬영한다면 중요한 점입니다.

이미 Video 2 Photo - HD를 갖고 있고 만족한다면 갈아탈 기술적 이유는 없습니다. 구독 없이 일괄 추출이 필요하다면 Video to Photo: Save Frames를 설치하고, 휴가 내내 찍은 영상을 맡기기 전에 클립 하나로 먼저 시험해 보세요.

Video to Photo: Save Frames가 잘못된 도구인 경우는 언제인가요?

iOS 전용입니다. Android 버전이 없으므로 Pixel이나 Galaxy에서는 아예 쓸 수 없고, 기능 비교로 이 사실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또한 평가가 0개인 버전 1.0이며 이는 실질적인 위험입니다. 두 시간짜리 8K 파일이나 흔치 않은 코덱에서 어떻게 동작하는지 아직 아무도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동영상을 편집하거나 자르거나 흔들림을 보정하지도 않습니다. 기록되지 않은 정보를 지어낼 수도 없어서 720p 클립에서는 1280 × 720 이미지만 나오고, 움직임으로 뭉개진 프레임은 그대로 뭉개져 있습니다. 흐림이 부호화된 픽셀 자체에 새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색 보정이 필요하면 여기서 프레임을 뽑고 사진 편집 앱에서 마무리하세요.

Video to Photo: Save Frames에 관해 자주 묻는 질문

Video to Photo: Save Frames는 무료인가요?

무료입니다. App Store 페이지에 표시된 가격은 무료이고 딸린 앱 내 구입도 없습니다. 설명문에는 구독, 광고, 워터마크, 내보내기 제한이 모두 없다고 적혀 있습니다. 설치 수가 가장 많은 경쟁 앱이 전체 기능을 연간 자동 갱신 구독 뒤에 두고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이 분야에서는 드문 조건입니다.

내보낸 사진의 해상도는 어떻게 되나요?

원본 동영상과 정확히 같습니다. 1080p 클립은 1920 × 1080, 4K 클립은 3840 × 2160, 8K 클립은 7680 × 4320, 즉 3320만 화소가 됩니다. 현행 iPhone에서 약 320만 화소인 화면 해상도에 갇히는 화면 캡처와의 가장 큰 실질적 차이가 여기에 있습니다.

인터넷 연결 없이도 동작하나요?

동작합니다. 앱이 네트워크 접근을 전혀 선언하지 않으므로 추출은 전부 기기 안에서 이뤄지고 촬영본이 업로드되는 일도 없습니다. 비행기 모드에서도, 배 위에서도, 신호가 없는 어디서도 쓸 수 있으며 23MB 내려받기는 서버에 붙는 얇은 클라이언트가 아니라 프로그램 전체입니다.

Live Photo에서 정지 이미지를 뽑을 수 있나요?

뽑을 수 있고 원본 해상도로 나옵니다. Apple은 셔터를 누르기 전후 1.5초를 기록하므로 Live Photo에는 약 3초 분량, 30fps 기준 약 90장의 프레임이 들어 있습니다. 사진 앱은 그중 하나를 대표 사진으로 올릴 수 있게 해 주고, 이 앱은 어느 프레임이든 따로 확인하고 내보낼 수 있게 해 줍니다.

내보낸 이미지가 원래 날짜와 위치를 유지하나요?

유지합니다. 원본 촬영 일시, GPS 좌표, 카메라 정보를 내보내는 파일에 복사하므로 이미지는 오늘 날짜로 뜨지 않고 원본 동영상 옆에 정렬됩니다. 공유할 사진에 위치 정보를 남기고 싶지 않다면 보내기 전에 사진 앱의 공유 시트에서 지우면 됩니다.

어떤 파일 형식으로 내보낼 수 있나요?

JPEG, PNG, HEIC입니다. HEIC는 Apple의 HEIF 구현으로 iOS 11 이상 모든 기기에서 지원되며 JPEG보다 눈에 띄게 적은 용량에 비슷한 화질을 담습니다. 계속 편집할 무손실 사본이 필요하면 PNG를, 오래된 소프트웨어와의 호환성이 중요하면 JPEG를 고르세요.

여러 프레임을 한 번에 내보낼 수 있나요?

있습니다. N프레임마다, N초마다, 또는 선택한 구간의 모든 프레임을 내보낼 수 있습니다. 프레임마다 한 번씩 눌러야 하는 도구와 갈리는 지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2초짜리 점프에서 60장을 뽑는 일이 예순 번이 아니라 한 번의 작업이 되며, 스포츠나 춤을 찍는 사람이 이 앱을 고르는 주된 이유입니다.

Frame Grabber보다 나은가요?

자동으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Frame Grabber에는 평가 3,123개와 7년의 이력이 있고 새 앱이 따라잡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다만 2025년 4월 이후 업데이트가 없고 전체 기능은 연간 구독 뒤에 있습니다. 검증된 안정성이 가장 중요하면 Frame Grabber를, 구독 없는 일괄 내보내기가 더 중요하면 새 앱을 고르세요.

동영상을 멈추고 화면을 캡처하면 안 되나요?

화면 캡처는 결국 화면의 사진이기 때문입니다. iPhone 17 Pro의 2622 × 1206 픽셀과 4K 프레임의 3840 × 2160 픽셀을 견주면 기록된 픽셀의 약 62퍼센트를 잃고 대신 재생 컨트롤을 얻습니다. 대화창에 붙일 목적이면 충분하지만 잘라내거나 인쇄할 목적이면 부족합니다.

인용 형식: Lubor Šimůnek (2026). *Video to Photo: Save Frames* 리뷰 — *iPhone* 동영상에서 원본 해상도 사진 저장. AppStoryo, lapnito.cz s.r.o.. https://appstoryo.com/ko/apps/video-to-photo-save-frames-review-2026
© 2026 lapnito.cz s.r.o.